
2021년 제28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7. 9. ~ 7. 1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7. 9.	시청률	0.028

【총 평】

4차 산업혁명에 친숙한 정보를 부각시키고, 피서철을 맞아 시의성을 살린 '무단 투기 잡는 스마트폰' 리포트와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다뤄 수용자 니즈를 살린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모기를 퇴치하고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현장 등 4차 산업혁명에 친숙한 내용이 시선을 끌었다. 또 피서철을 맞아 시의성을 살린 '무단 투기 잡는 스마트폰' 리포트는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현장 고발과 함께 스마트폰 신고제 정책을 소개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건인하는 우수한 아이템이었다.

이 밖에 대중교통 유실물 찾는 법과 청년 주거상담 리포트는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해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했으며, '친환경 섬유 소창 인기'와 '국내 첫 미각 도서관'은 향토색 짙은 내용과 신선한 소재로 호기심을 유발했다. 글로벌 리포트는 보훈의 달을 보내며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교민들의 보은 스토리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구성 및 내용】

- 여름 불청객 말라리아, '드론' 띄워 모기 잡는다.
인천시 서구 청라지역에서 모기 유충 서식지에 살충제를 뿌리는 드론을 활용한 유충 방제 작업의 모습을 전했다. 전국 최초로 인천 서구에서 스마트패트롤 사업(Smart Patrol Project)이 구축되었고, 밝은색 긴 옷이 모기에 덜 물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폰'으로 잡는다.
고속도로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의 모습을 전했는데, 음식쓰레기를 비롯해 생활 가전제품, 공사장 폐기물까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전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스마트폰 신고제와 포상금 지급 내용 등을 전했다.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수성구가 마련한 제2회 세계문화산업포럼 행사의 의미를 전하며,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첨단 기술의 영향력 확대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대중교통에서 분실한 물건, 찾는 방법 알아둬야
충무로 유실물센터를 찾아 센터의 유실물들을 살펴보고, 현금, 전자 귀금속 고가제품은 7일 후 경찰에 신고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 사회단체에 기부되며, 물건을 잃어버린 후 대처방법에 대해 지하철, 버스, 택시의 경우를 나눠 설명했다.
- 주거고민 해소하는 '청년 주거 상담'
서울 금천구 청춘뽀뽀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지방출신으로 서울에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문가가 배치되어 주거상담을 하는 내용을 전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7. 9.	시청률	0.000

【총 평】

‘한국판 뉴딜 1년, 추진 현황·향후 과제는?’편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작년 7월 14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 그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이를 극복하여 글로벌 경제 선도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뉴딜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국가의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ICT 기반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알뜰신잡’에서는 안전한 과일 채소 보관법을 소개했는데, 기온이 높아감에 따라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내용이었다.

【구성 및 내용】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뉴딜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디지털 뉴딜은 IT를 주축으로 한 경제혁신을 도모한다는 것이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 저탄소, 수소경제 등을 앞장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혁신에 따라 뒤처지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즉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세계는 현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다. 이에 디지털 산업생태계의 적응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디지털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그간 산업화에 따른 탄소의 과다 배출이 있었고 일부국가는 한국을 탄소불량국으로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기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런 경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망 강화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고용사회안전망, 인재양성 및 직업 훈련 등의 사람투자를 세부 추진과제로 삼았다.

‘알뜰신잡’에서 과일을 식전에 섭취하는 것이 영양 흡수률도 높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식사 후 디저트로 생각하는데 식후에 먹을 때 췌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1. 7. 9.	시청률	0.017

【총 평】

‘소양강 냇강마을 심포니 - 강원도 인제’편은 여름의 길목, 입하를 맞이하여 강원도 인제의 풍경과 시간, 꽃향기가 가득한 소양강 냇강마을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았다.

10년 전 귀농을 해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정순철 씨를 비롯해 20대 청년 농부, 은퇴 후 귀촌을 해 꽃차를 만들고 있는 부부, 70년 째 활동하고 있는 민속생활용품 기능장의 작업 모습이 담겼다. 여름의 소양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 그 물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는 모습이 평화롭게 전해졌다.

【구성 및 내용】

소양강 상류의 인북천은 백두대간에서 이어진 대암산과 소양강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그 야말로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그 상류에 냇강마을이 있다. 2003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정착해 마을을 이뤘다.

2010년 귀농한 정순철씨는 블루베리 농사를 선택했다. 높은 지방이다 보니 일조량도 많아 블루베리가 맛있게 익는다. 정순철 씨처럼 현재 냇강마을에는 20여 가구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생산량이 상당하다. 이제는 블루베리가 빨리 익기를 바라는 농부가 되었다. 블루베리를 따서 큰 통에 담은 소리가 밤을 담은 소리같이 든든하다. 냇강마을에는 20여가구가 블루베리 농사를 하고 있고 체험농장도 제공한다.

약 4천평 규모의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청년농부 박선현 씨는 가족과 함께 농사일을 하지만 농업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농부라는 사실과 마을에서 유일하게 20대라는 점에서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농부가 되고 싶어 한다. 특히 탐스런 블루베리 열매가 한 알 한 알 쏟아져 담기는 영상을 연출할 때 리얼하게 표현된 사운드 처리는 농부의 땀과 결실을 연상케 해서 색다른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 정년을 맞이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 부부는 정원을 꾸몄다. 아내는 마을에서 자란 꽃으로 꽃차, 꽃청을 만든다. 냇강마을에는 꽃차 소믈리에 과정을 마친 주민들이 30여명이 된다. 이들은 꽃차 동아리를 만들어 꽃차, 꽃사탕, 꽃청에이드 등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꽃차를 만드는 과정과 꽃차에이드, 꽃사탕을 보여주는 과정은 그 빛깔과 색감, 정갈함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꽃차와 함께 다과를 나누며 덕담을 나누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고 가치롭게 보였다.

민속 생활용품 기능장인 이종관 씨는 눈으로 배워 70여 년간 민속공예품을 만들어왔다. 예전에는 생활필수품이었지만 이제는 공예품이다. 마을 한자락에서 사포질 소리를 내며 70여년이나 민속 생활용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재주 장인이다. 그는 팔십 인생을 판소리 한마당으로 풀어낸다. 민속기능용품 기능장의 작품들과 냇강 마을 방향 표시를 하는 솟대를 만드는 영상을 통해 냇강 마을의 역사도 엿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7. 10.	시청률	0.170

【총 평】

“너희에게 시골의 추억을 선물할게”편은 40대 전후 부부가 두 아들과 경북 상주의 농촌으로 이주해 1년 살아보기에 도전해보는 일상을 그려 도시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기획이 돋보였다. 중학교 교사 출신 어머니와 장기간 휴가가 가능한 항해사 직업의 아버지가 친정 부모가 마련한 70년 된 농가주택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과 살며 달라지는 생활의 변화를 그린 구성이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가족이 왜 귀촌했는지 동기와 자연친화적인 생활, 귀촌 5개월이 지난 후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보여줘 설득력이 높았고, 귀촌 5개월의 결산은 “시골 오기 참 잘했다”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민, 조기교육에 시달리는 어린이들, 인성은 어린시절 결정된다는 점 등에 대한 대안으로 ‘자녀들과 시골에서 1년 살아보기’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구성 및 내용】

독박육아라는 말을 화두로 던지며 시작했다. 아빠가 항해사로 6개월간 배를 타고 2달간 휴가를 보내는 직업의 특수성을 전했고, 아빠가 승선하면 엄마가 직장, 가사, 육아를 모두 책임지게 되었다. 행복을 미루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1년을 시골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용감한 선택으로 귀촌한 가족의 일상을 소개했다. 유치원에 가는 길을 따라가며 시골 풍경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했다. 차로 1분이면 가는 길을 일부러 걸어가며 동네 개들과 인사하고 주변의 모습을 살피느라 30분 넘게 걸어서 유치원에 가는 모습이 담았다.

5년간 폐가로 있던 70년이 넘는 낡은 시골집을 보수했다. 제주도를 먼저 떠올렸고 결국에는 상주와 강원도 속초중에서 고민하다 놀이 중심의 유치원 학교가 있어 상주를 택하게 되었다. 밭에서 고추와 토마토, 감자를 따고 염소에게 먹이를 주는 유치원 수업을 소개했고, “미래를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치 않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여건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 실컷 놀아봐야 한다”는 부모의 가치관을 소개했다.

논두렁에서 개구리와 올챙이를 잡는 정겨운 시골풍경과 “그만하자”라는 말이 반복되었던 도시생활에 비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여유로운 시골의 삶을 보여주었다. 벌레가 많아 꺼려졌지만 막상 아이들에게는 놀잇감이 되고 불편한 것이 놀이의 현장이 되어 불편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자연의 놀라운 치유력이 오감을 깨우고, 공기의 질, 빛의 양을 느끼는 등 감각이 깨어났다, 온갖 벌레와 친구가 되었다며 지렁이를 서슴없이 만지는 아이의 모습과 야외에서 먹는 저녁식사로 삼겹살, 방금 딴 채소, 가족들의 웃음이 전해졌다 인간은 계획하고 신은 그것을 비웃는다는 프랑스 작가 기욤 뫼소의 말과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살아간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7. 11.	시청률	0.000

【총 평】

‘친북’에서는 북한의 국경 봉쇄 강화와 그에 따른 식량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았다. 특히 북한을 이념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이슈텔링’에서는 2019년 11월까지 북한에서 살다 온 IT전공자 북한 출신 크리에이터를 통해 북한 젊은 세대의 언어문화와 식품과 생필품의 가격이 무려 3~10배까지 급증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들어보았다.

【구성 및 내용】

지난 6월 2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와 국민 안전에 위기를 조성하는 커다란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책임간부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논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 뭔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배정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파견된 국제요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일년 넘게 봉쇄하고 있었는데, 백신을 맞은 안전한 요원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더 큰 문제는 전기사정이 녹록치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냉동보관을 요하는 백신의 수송과 배분 체계에서 자신이 없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실정을 고려한 창의적인 지원책으로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으로 올해 추수기 전까지 8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와중 매년 장마철, 태풍으로 인해 더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 북한의 이례적인 식량난에 대비해 우리나라 비축미가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권장량의 약 두 배를 웃돌고 있다는 설명이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데 기여했다.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까다로운 제제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원칙을 바꾸거나 인도주의적 제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의 충격으로 우리정부나 미국에 불만이 있으므로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판단을 잘 헤아려서 물밑접촉 등을 시도해야 한다. ‘주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는 데도 배려가 있어야 하고, 받는 쪽도 좋은 매너가 있어야 한다.

‘이슈텔링’에서는 북한에도 남한드라마의 인기가 높다는 점, 북한도 사투리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는 점, IT 전공자보다 포토샵 전공자가 사회 활동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흥미롭게 전달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7. 11.	시청률	0.000

【총 평】

‘한국전쟁 초기 민간인 희생 - 진주 지역 희생사건’편에서는 경남 진주지역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된 비극적인 사실을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과 유족들의 추적 취재로 다시 규명한 기획이 돋보였다.

항일운동이 전개되고 역사적으로 신분해방운동까지 있었던 경남 진주지역에서 왜 이런 끔찍한 비극적 학살의 참상이 빚어졌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밝혀낸 점이 전후세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역사인식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구성 및 내용】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그동안 은폐되고 왜곡된 민간인 희생사건’을 대상으로 아픈 현대사의 진실을 시리즈로 규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기록물’과 ‘다시 쓰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탐사보도 형식의 사례별 팩트 파인딩 구성으로 학살현장을 탐방하고 고령층 유족들을 찾아 생생한 증언을 듣는 인터뷰가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경상남도 진주 민간인 희생사건에 앞서 해방 전후 진주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전쟁 초기 진주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배경을 짚어 보았다. 특히 진주에서 시작돼 전국적 활동으로 발전한 ‘형평사’운동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권 운동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7월부터 희생이 집중되어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희생사실이 확인된 인원은 77명이지만, 당시 정황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 400여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희생자들의 78%는 농민, 연령별로는 20~30대가 83%를 차지했고 이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으로 밝혀졌다.

진주 동쪽에 위치한 지수면을 찾아 진주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으로 아버지가 희생된 77세 유족의 증언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만주지역 철강소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지냈으며, 지서에서 소집 통보를 받은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후 사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2009년 진실화해 과거위원회는 경남진주시 전성고개 법륜골에서 총 54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명석면 용산고개에서 유골을 발굴하고 그 동안 발굴한 유해를 모두 유족이 관리하는 용산리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다. 최근에도 희생자 유골이 발굴되었다. 민간인들이 특별함 혐의 없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발견된 유해가 컨테이너에 보관되고 언제까지 임시시설에 보관될 것인지 안타까웠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 위원회는 진주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와 유해발굴, 유해안치장소 설치사업을 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뭘니?		
방송일자	2021. 7. 11.	시청률	0.007

【총 평】

‘탄소중립 실천하고 탄소포인트 받기’와 ‘재난적 의료비로 의료 걱정 NO’ 등 최근 정부의 역점 시책과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정보로 만족도를 높였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탄소포인트제’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시민안전사고보험’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과 관련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 누리집에 접속하여 나의 실천 일지와 온실가스 감축량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누리집 접속 방법,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법,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등을 소개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절감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포인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가구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서 접수한다.

나라별 탄소중립 정책 소개에서는 프랑스는 파리 쿨테르 캠페인과 미국 온실가스 감축 선언, 그리고 네덜란드 델프트시가 저탄소 실현도시가 될 수 있는 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0%에서 25%로 감축 선언을 했으며, 네덜란드는 1979년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을 했으며, 전 국민 자전거 보급률 100%와 자전거 교통 부담률 45%를 자랑한다. 이외 중국과 일본 등도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안전사고 보험금 정부 지원에서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함께 지자체 별 시민안전사고 보험을 소개해 정책이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의 자전거 보험 정책은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무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전거가 자동차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시민안전사고 보험은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민재난 안전포털을 이용해 정보를 알 수 있다. 시민안전사고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자연 소멸된다.

생활안전지도 앱은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 시설에 대한 안전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범죄 주의 구간별 치안 사고 통계, 어린이 대상 범죄 현황, 여성 밤길치안 안전, 불법 촬영 빈번 지역, 노인 대상 범죄 빈번 지역을 세부적으로 표시해준다. 생활속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7. 11.	시청률	0.009

【총 평】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화두에 오른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로 세계 글로벌 리서치 기관 가트너에서 3년 연속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가 되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잇는 디지털 트윈’편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섬진강 유역의 물관리 현장을 보여주었고,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알려주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S-Map을 설명했고, 메타버스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주었다.

【구성 및 내용】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차량, 도시, 도로, 사람 등 여러 가지 실물 대상을 거울을 앞에 둔 쌍둥이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 현실세계를 재현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트윈의 핵심기술로서 공간정보기술이 중요하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소에서 발간한 ‘디지털트윈의 꿈이란 기술서’는 어떤 시각, 관점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핵심으로, 외모와 성격이 얼마나 닮았느냐하는 것을 담고, 현실과 디지털트윈 간의 통신, 트윈이 하는 다양한 역할이 멀티페르소나 트윈이므로 각각의 기술의 성숙도 모델 등이 담겨져 있다.

디지털 트윈이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실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해결과 가상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수행이 가능하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의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으로 가상세계와 캐릭터를 구성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다. 체험을 하는 것은 실제 체험하는 장비들로 구성되며,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의 콘텐츠이다.

한국판 뉴딜에서 중요한 국토, 도시에 디지털 트윈 구축으로 생기는 변화는 3차원에 시간을 더한 4차원 기반의 정보인프라를 만드는 것으로 교통문제, 대기오염, 재난상황 등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보다 직관적으로 현실적 문제를 느끼고 해결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으로 달라지는 우리의 삶과 미래는 산업적 측면에서 제품 원가가 절감될 수 있고, 제품 고장 진단 등 보수가 효과적으로 된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고객 서비스 향상, 국가 안전 면에서 우리의 공공자산의 유지보수, 고장 예측 예지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망을 확보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디지털 트윈을 잘 발전시키면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국가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경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윤리, 규제, 기술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